

## 문화산책

## 박기복

영화감독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약속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언어는 드물다. 말 한마디로 시작되지만, 그 무게는 신뢰를 만들기도,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지각과 핑계와 변명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필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출자로서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해왔다. 영화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시간, 자원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약속'이 존재한다.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 배우 캐스팅, 리딩, 촬영 일정, 후반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약속 위에서 움직인다. 각각의 단계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일정은 쉽게 균형을 잃는다.

그렇기에 영화 제작 현장에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일에 가깝다. 단 한 번의 지연이나 변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제작 전반을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개인의 창작을 넘어선 집단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며, 그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김대중 도교육감이 지킨 아이들과 약속의 무게

영화는 관객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 그 첫 관문이 바로 개봉 전 진행되는 시사회다. 시사회는 단순한 '미리보기' 행사가 아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관객의 반응을 통해 마지막 수정을 붙여넣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독과 배우,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이 평가받는 긴장과 설렘의 자리이기도 하다.

시사회에는 지인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초대된다. 제한된 극장 좌석에 맞춰 신중하게 초청 명단이 구성되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 분위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참석을 약속하고도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최 측은 실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을 초대하는 이른바 '오버부킹'을 감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객석 곳곳이 비어 있는 풍경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다. 행사 전체의 밀도를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현장감을 지켜보는 창작자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긴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라면 일정 조정이나 대체 초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불참하는 경우다. 가벼운 약속처럼 여겨지는 태도는 결국 누군가의 오랜 노력과 시간을 가볍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사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영화라는 집단 예술의 마지막 점검 무대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관객 한 명 한 명이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다. 그렇기에 '참석'이라는 약속은 생각보다 무겁다. 작은 책임감이 모여 한 편의 영화가 더욱 빛날 수 있다.

필자가 '약속'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다. 그는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독서, 영화, 인공지능 등 세로

운 분야에 대한 배움과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궁금한 분야는 스티디그룹을 만들어서라도 학습에 몰두하고 배우는 모습은 배움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즐기는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

2년 전, 필자는 전남 화순의 작은 학교인 청풍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 제작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수업의 결실로 완성된 작품은 '제1회 전라남도 작은학교 영화제'에 출품되어 극장 상영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상영회 당일, 김대중 교육감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학생 감독과 배우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다음 작품에 교육감의 출연을 요청했고, 그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이를 흔한 격려의 인사, 일종의 의례적인 약속으로 가볍게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잊힐 것이라 여긴 것이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시작된 영화 제작 수업에서 아이들은 그 약속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육감 역시 그날의 약속을 메모해두고 잊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약속의 의미와 책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지키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아이들과의 약속은 더욱 그러하다. 어른의 말 한마디는 아이들에게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구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켜지는 작은 약속들이다. 그 축적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지탱하며, 관계가 공동체를 유지한다. 약속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

##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2000년대 초 광주광역시에서 광(光) 산업이 첫발을 내딛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광주는 자동차 부품과 가전 조립 중심의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산업 구조의 전환이 절실하던 시기였다.

정부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광주는 '광(光)'을 특화 산업으로 선택했다. 한국광기술원(KOPI)이 설립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주·전남연구센터가 들어섰다. 단순 기관·기업 유치를 넘어 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 찬 출발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은 성공했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저조했고, 삼성·LG급 앵커 기업 유치에는 끝내 실패했다. '광산업 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만 남긴 채, 지역 광산업은 오랫동안 정체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 판이 바뀌고 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열린 OFC(광섬유통신 국제학술대회)의 핵심 화두는 분명했다. AI 시대에 광통신은 선택적 보조 기술이 아니라

## AI 시대 빛 '전남광주특별시' 산업 대혁신 이끈다

연산 인프라의 핵심 배선망이고, 실리콘 반도체는 그 광기술을 대량생산·저전력·고집적 형태로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재정의되고 있었다. 'Photonics is the Fabric of AI Datacenters', 광통신이 AI 인프라의 근간이라는 선언이 이를 방증한다. CPO(Co-Packaged Optics, 광학 소자전자집단지판일체화), 실리콘 포토닉스, 1.6테라 초고속 광인터커넥트, OCS(광회로 스위칭)가 전시장을 압도했다.

왜 지금 광통신인가? AI 경쟁력은 더이상 GPU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천 개의 GPU와 ASIC, 메모리 노드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올해 OFC에서는 광통신을 'AI 인프라의 혈관'으로 표현하며, GPU들을 연결하는 광섬유·광모듈이 AI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전기 배선 기반 인터커넥트는 AI 클러스터 규모가 커질수록 대역폭·전력·발열의 한계를 드러낸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속도와 전력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데이터센터 냉각 비용까지 절감한다.

시장 전망도 고무적이다. 글로벌 광통신 모듈 시장은 2024년 220억 달러에서 2030년 970억 달러로,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은 같은 기간 37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성장의 촉은 플라저를 모듈에서 CPO·NPO(근거리 패키징 광학)를 거쳐, 장기적으로 Optical I/O로 이동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회는 여기에 있다. 완제품 주도권보다는 공급망 집투형 전략이 현실적이다. 실리콘 포토닉스 설계, CPO 패키징, FAU((Fiber Array Unit)·PM(Polarization Maintaining) 파이버, 1.6T(테라) 테스트 장비, PIC(광집적회로) 테스트 인프라, AI 기반 불량 예측 등 고부가 소·부·장과 검증 인프라에서 먼저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OFC에서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운영한 한국관 상담역이 2024년 대비 4.4배 증강했고, 국내 광통신 모 기업의 비정족시 광케터가 Global Foundries와 연결된 사례는 특세 부품·패키징 영역에서 실질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은 '광이 좋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 기능이 반도체 제조 체제 안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는 곧 실리콘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치가 단순 로직 칩 생산을 넘어, 포토닉스·패키징·메모리·테스트를 통합하는 '광-반도체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7년 이후 1.6테라 공급망 진입 경쟁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금이 바로 진입 적기인 것이다. 삼성·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대기업의 유치와 광-반도체 융합 생태계 구축이 맞물린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AI 시대 광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여년 전 씨앗을 뿌렸던 그 땅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왔다.

두 소방관은 화재 진압에 나섰다 구조물 붕괴로 현장에 고립돼 끝내 목숨을 잃었다.

변수가 많은 화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 도입과 함께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정비도 필수적이다. 소방공무원은 사시사철 각종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이들이다. 그 과정에서 입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후 장비 교체와 안전 예산 확대 역시 시급하다.

또한 반복되는 참사와 일상적인 출동 과정에서 쌓이는 심리적 부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참사 직후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평상시에도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서는 이들의 안전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

## 취재수첩

## 순직 소방공무원 희생 헛되지 않기를

##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이 지난 14일 완도군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অনুস্থ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늘름한 아버지이자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던 두 영웅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추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로 감싼 두 소방대원의 관이 강당 중앙으로 운구되자, 동료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로 마지막 예우를 갖췄다.

특히 수많은 재난 현장을 함께 누비며 동고동락해 온 동료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애도함에 눈물을 흘렸다. 동료들은 마지막 편지를 통해 고인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소방경의 이들은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였다. 못 본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으으로 영영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앞길에 막막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일든 해내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눈물 속에 약속했다.

이 순간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민기 힘든 현실 앞에서 끝내 통곡을 터뜨렸다.

## 사설

## 세월호 참사 12주기 "안전 세상 만들어야"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행사가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 천변길 공원 내 '세월호 기억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또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묵묘기억식'이,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개최됐다.

특히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울음을 멈추게 하라!'라는 주제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광주 기억문화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등이 주관한 이 행사는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이후 이어진 사회적 참사를 함께 돌아보며,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21년 6월 9일에는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돼 3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참사가, 2022년 1월 11일에는 공사 중이던 아파트 단지가 붕괴돼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참사, 2022년 10월 29일에는 할로윈 축제에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또 2024년 12월 29일에는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사고로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공항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지난해 12월 11일에는 도서관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구조물이 붕괴돼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붕괴참사 등 매년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되풀이됐다.

이런 대형사고 직후 대책이 쏟아지고 재발 방지가 약속됐지만 그때 뿐이었다. 여전히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오늘 우리는 이날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시는 이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 중동불안, 제조업 '회황' 실질적 대책 절실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가 현실이 됐다. 이로 인해 광우지역 제조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이미 실질적인 경영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동 사태가 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보면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5.0%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중동정세 불안이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압박요인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부담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74.7%)이었고 이어 해상운임·물류비 상승(46.2%),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35.2%),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29.7%) 순이었다.

압박 강도는 업종별로 달라지는 데 전자제품·통신과 자동차·부품 업종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선 꼽았고 기계·장비 업종은 해상운임·물류비 상승을 선택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물류비 상승에, 내수 중심 기업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영상 부담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이었는데 특히 비용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 악화 압박이 더 컸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업의 93.5%도 이러한 불안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나머지 6.5%도 대담 유보층이었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물론 현재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고 종전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사태 수습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피해는 견줄 수 없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높다.

이처럼 중동정세 불안으로 지역 제조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서둘러 업종별·규모별 피해를 정밀 진단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대표전화 (062) 370-7000	경 채 부 370-7020	임 영 실 370-7000				
팩스 (062) 385-54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를 체결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